

추석 앞두고 전통시장 북적



▲ 서울의 한 전통시장. 사진=연합뉴스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이 북비고 있다. 올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전통시장이 대형마트보다 18.6%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0일 '경향신문'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4인 기준 추석 차례상 준비 비용은 전통시장이 평균 29만5,668원으로, 대형마트(평균 36만385원)보다 18.6%(6만7,417원) 저렴했다. 이는 지난 17~24일 전통시장 37곳과 인근 대형마트 37곳을 상대로 추석 제수용품 27개 품목의 가격을 조사한 결과다.

소진공은 27개 품목 중 18개 품목의 전통시장 제품이 대형마트보다 저렴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사리와 간도라지는 전통시장 가격이 대형마트에 비해 각각 67.4%, 62.9% 싼다. 대추와 숙주, 탕국용 쇠고기도 34% 이상 저렴했다. 특히 전통시장의 채소류 가격이 대형마트와 비교해 47%, 수산물·육류는 각각 24.4%, 23.1% 싼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난해 추석 제수용품 가격과 비교하면 전통시장은 10.4%, 대형마트는 2.7% 상승했다.

채소류는 봄철 가뭄과 여름철 폭염, 집중호우 등으로 대부분의 품목에서 가격이 지난해보다 더 비쌌다. 과일류도 이른 추석으로 인해 햇상품 출하가 늦어져 가격대가 높게 형성됐다. 다만 배는 산지 작황이 양호해 생산량 증가로 가격이 안정적이었다.

수산물과 축산물은 추석물가안정대책에 따라 최대 수준으로 정부가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할인쿠폰을 발급해 가격이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했다.

한국 정부,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 폐지

지난 3일 0시부터 한국에 도착하는 모든 내·외국인은 코로나19 PCR(유전자증폭) 음성 확인서 의무 제출 제도가 폐지됐다. 이번 조치는 접종 이력이나 출발 국가와 상관없이 적용된다. 다만 입국 1일 이내로 시행해야 하는 입국 후 PCR 검사는 계속 유지된다.

그동안 한국에 입국하는 모든 사람은 입국 전 48시간 이내의 PCR(유전자증폭) 검사 또는 24시간 이내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음성확인서를 제출하고, 입국 후 1일 이내에 PCR 검사 결과를 추가로 받아야 했다.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한국행 항공기 탑승이 제한됐다.

이를 두고 여행·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입국 전 해외에서 받는 검사의 비용 부담, 그에 반해 입국 전후 검사의 짧은 시간 간격으로 인한 낮은 효용성에 대한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조치는 국가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의 권고 등을 토대로 확정됐다.



▲ 인천공항 코로나19 검사센터. 사진=연합뉴스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는 입국 전 코로나19 검사를 폐지하고, 입국 직후 검사로 대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정부에 제시했다. 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지난 29일 "귀국 전에 다른 나라에서 출발 48시간 전, 24시간 전에 하는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궁극적으로 폐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주택 매매량 9년 반 만에 '최저'

금리 인상과 고물가, 경기 침체 우려 등으로 주택시장 내 거래절벽이 심화하면서 주택 매매거래량이 9년 반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 31일 "해럴드경제"가 국토교통부를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7월 전국의 주택 매매거래량은 총 3만 9,600건으로 전년 동월(8만 8,937건)보다 55.5%, 지난 6월(5만304건)보다 21.3% 각각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3년 1월(2만7,070건) 이후 9년 6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내려앉은 것이다.

지역별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수도권 60.2%, 지방 51.2%가 줄었다. 유형별 거래량은 아파트가 63.2% 감소했고, 아파트 외 주택이 39.9% 줄었다.

지난 7월 말 기준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수도권이



▲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부동산 매매, 전월세 상품이 준비하게 걸려있다. 사진=연합뉴스

4,529가구, 지방이 2만6,755가구로 한달 새 각각 1.6%(73가구), 14.1%(3,301가구) 늘어났다.

7월 전·월세 거래량(신고일 기준)은 21만90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3.8% 증가했다. 전월 대비로는 0.8% 감소한 수치다.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50.3%로,

지난 4월부터 4개월 연속으로 50%를 넘어섰다. 월세 비중은 올 들어 7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는 51.5%를 기록했다. 이는 작년 같은 기간(42.3%) 대비 9.2%포인트, 최근 5년 평균(41.4%)과 비교해 10.1%포인트 각각 높아진 수치다. 최근 금리 인상으로 월세 선호현상이 뚜렷해진 가운데 임대차 신고제 도입 이후 비아파트 등의 월세 거래 신고가 늘어난 영향이 있다고 국토부는 분석했다.

프리미어 공인세무 그룹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PREMIER TAX GROUP (714)530-2033
8942 Garden Grove Blvd. #203, Garden Grove, CA 92844

각종 세금 관련 상담 및 문의
info@isemusa.com
taxcapital@gmail.com